

광주 ‘AI’ 위기·기회 공존...전남 ‘에너지’ 호재

여야, 정부예산안처리

市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탄력
도 도시가스 지원 ↑ 정주여건 개선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유지

여야가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며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합의 처리한 가운데 광주는 ‘AI산업’의 위기와 기회 공존, 전남은 ‘에너지산업’의 호재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



여야·정부, 예산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송연석 원내대표(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전남은 ‘에너지 산업’의 호재, 광주는 ‘AI 산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가 AI집적단지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의 경우 ‘AI 관련 지원’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광주 AI융합집적단지 조성 2단계 사업이나 스타트업 R&D 지원에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행히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예산이 증액된 만큼 광주가 주력하고 있는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및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산업계는 단순 SW 개발

보다는 ‘자동차 탑재형 AI’나 ‘자율주행 인프라’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전남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호재는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예산의 증액이다.

전남(특히 신안·해남)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많지만 이를 수도권으로 보낼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빈번했다.

분산전력망 육성 예산 증액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가 되며 지역 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증액은 지역민의 난방비 절감과 정주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화폐 예산이 감액 없이 유지된 것은 광주 상생카드나 전남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보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이다.

한편, 광주에는 정부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가 소재해 있다.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 증액은 광주센터의 기능 강화나 관련 IT 장비·인프라 기업의 수주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광주시, 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점검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과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야영장 등 취약시설 총 92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자치구,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분전반 및 배선 상태, 누전 및 배선용 차단기 손상 여부, 열화·과열 흔적 등 전기설비 안전 상태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에 일정 기간을 부여해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겨울철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변은진 기자

12월 농촌휴양마을에 ‘담양 달빛무월마을’

전통한옥·자연 어우러져 힐링 제적

시집 필사·한과 만들기 등 체험 다양

전남도가 담양 대덕면의 달빛무월마을을 12월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사진> 달빛무월마을은 달이 떠오르면 산봉우리의 실루엣을 따라 은은한 빛이 마을을 어루만진다고 해 ‘달빛이 어루만지는 마을’이란 뜻을 담고 있다. 전통한옥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이다.

돌담길과 대나무숲, 소나무 숲길, 달맞이 산책길 등 자연친화적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응

달샘, 달맞이, 햇살, 교촌재, 사랑방 민박, 감나무집, 큰바위 민박집, 다담, 아래뜰 등 10여곳의 한옥 민박과 시골할머니 수육 한상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체험객에게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체험 프로그램도 매력적이다. 한옥마을에서 영화 ‘동주’를 감상하며 윤동주 시집 필사하기, 전통밥 만들기, 한과 만들기, 풀잎염색 예코백 만들기, 고구마·단감 수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근에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인기와 연계한 자개로 꾸미는 ‘갓 키링 만들기’ 체험을 개발

해 아이들은 물론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달빛 무월마을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도 뛰어나다.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숲길로 유명한 메타세쿼이아길과 대숲 산책 명소인 죽녹원이 위치했다. 관방제림, 소쇄원, 담양호, 금성산성 등 담양의 대표 관광지가 가까워 1박2일 체류형 여행지로 제격이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담양 달빛무월마을은 전국 체험마을 으뜸촌 선정, 경관 최우수 마을 선정 등 전국 마을 콘테스트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입소문 난 체험마을”이라며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래줄 완벽한 힐링 여행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전남도는 현재 171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은 130만여명에 달한다. 앞으로도 농촌마을 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매월 우수 마을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전남농기원, 고구마 잎·줄기로 화장품 개발 착수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의 잎과 줄기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화장품 개발 연구를 본격화한다.

전남은 해남·무안·영암을 중심으로 전국 최

대 규모의 고구마 생산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식용 부위를 제외한 잎과 줄기(지상부)는 대부분 폐기돼 매년 대량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버려지는 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고구마 잎·줄기의 유용성분을 분석하고 기능성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는 항염, 항산화, 피부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클로로겐산 등 주요 성분에 주목해 ▲추출 조건 최적화 ▲기능성 원료 개발 ▲미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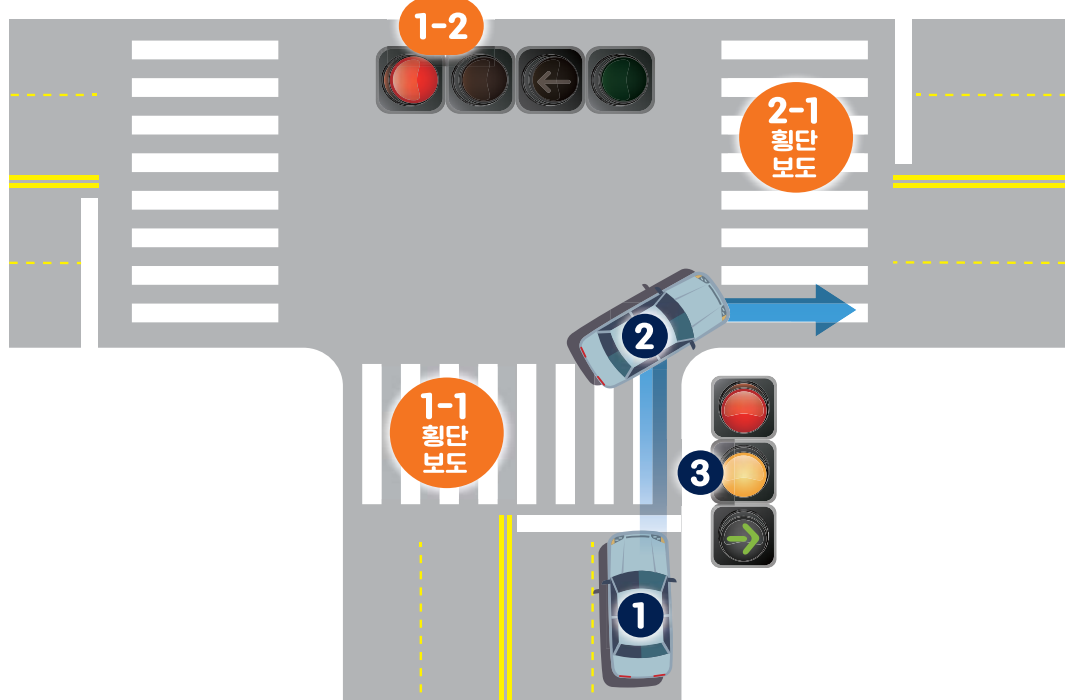
·주름 개선 화장품 개발 ▲면역력 강화 음료 개발 등 2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화장품용 기능 성분 추출 공정의 최적 조건 구명을 완료했으며 2026년 이를 활용한 기능성 크림·앰플 등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산업체와 협업해 개발 제품의 상용화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1 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2 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3 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